

##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Ⅱ)

—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외계인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1983년 8월 12일, 일본 GAP여행단 36명은 아리탈리아항공 점보제트기로 나리타 공항을 출발했다.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일본 GAP기획 제 5회 해외연수 여행 「예루살렘 우주고고학 여행」의 출발이다.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이 도시가 역사상 최대의 비극과 영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땅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관련 유적이 풍부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우주적인 파도에 접하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와도 일절 관계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우주프로그램(지구 구제계획)의 일환으로써 금성에서 지구로 환생해온 자원봉사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애덤스키 저(著) 「제2혹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신 애덤스키의 진집 제1권)에 우주인이 말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 왜곡된 예수의 우주철학

최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나 교단을 창립하기 위해 교리로서 설명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의 철학이었으나 잘 이해되지 않은 채로 곡해되고 유태교(猶太教)전성시대의 신흥종교로 간주되어졌다. 그리고 바오로가 교리를 유럽으로 전파한 후로는 완전히 종교가 되고 말았다. 교리로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느님 아버지”는 만물을 살리고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나 우주예지, 또는 대우주에 깎차있는 창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애덤스키의 우주철학에서는 해석하고 있지만 2천년동안 세계의 무수한 기독교인은 “하느님 아버지”를 천공의 저편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신을 분리시켜 버렸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 존재하는 신을 향해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참다운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빈곤이나 병고로 괴로워 하기도 하고 우주 법칙이 전해진 뒤로 2천년이나 경과했는데도 세계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전쟁에 의해 살육이 끊이질 않고, 게다가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신자도 있는 상태이다. 참다운 신(우주의 의식)은 만인의 내부의 머물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그 신과 합체시킨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완벽한 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어떠한 구원이라도 실현된다고 애덤스키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우주철학(애덤스키 철학)을 연구실천하고 있는 것이 일본 GAP이라고 하는 집단이다. 화술에 능숙했던 예수도 많은 비유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철학을 전했지만 2천년동안 대부분의 신자가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실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애덤스키는 말한다.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우주의 신인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지상으로 보내시어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떠맡게 하고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성직자도 적지 않다. 도대체 우주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지구라고 하는 좁쌀보다 작은 혹성에 한사람의 인간을 보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3차원 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없는 대우주라는 것을 고찰하는 것 만으로도 짐작이 갈 것이다. 수년간 세계의 기독교인은 지구만을 인간이 사는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시야에서 신을 설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애덤스키식으로 말하면, 우주의 모든 천체, 모든 생명체가 말로 신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범신론이 아니고 상념을 내보낸다는 미래과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론은 다음 세기에 일반화 되어 갈 것이다.

## 태양계의 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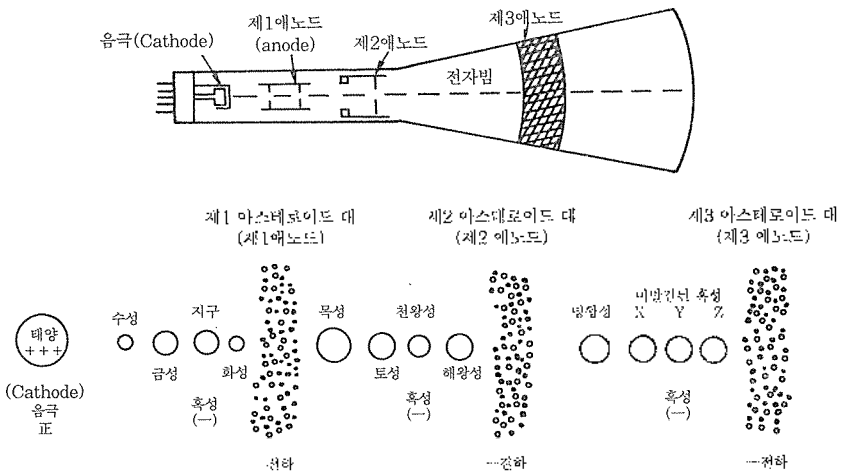
애덤스키에 의하면, 태양계에는 9개가 아닌 12개의 혹성이 있고, 게다가 12개의 모든 혹성에 인류가 살고 있으며, 지구를 제외한 전혹성에는 지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문명이 번창해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제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덤스키 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혹성탐사기의 보고로써 금성 등은 섭씨 500°에 가까운 작열하는 지옥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나 생물이 살수 없다 라든가, 역 이승 법칙 때문에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혹성군에는 태양의 방사 에너지가 지구와 같은 정도로 도달할 리가 없다는 등의 생각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과학적 근거는 미국의 우주과학 연구기관에 의한 태양계에 있어 지구 이외의 혹성군에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공식발표는 진상은폐공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제까지 필자가 수집한 다수의 정보로 볼 때, 이 태양계의 지구이외의 혹성군에도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여 인류가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러시아 양국의 일부 최고급 과학자나 정부수뇌부는 잘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대혼란의 발생을 우려해서 그저 숨기기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 태양계와 TV 브라운관의 비교

물리학의 역이승 법칙(태양의 방사에너지는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해서 약해져 간다는 법칙)은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지구보다도 훨씬 멀리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혹성이라도 지구와 비슷한 온난한 기후가 존재하는 이유로서, 애덤스키는 TV 수상기의 브라운관을 태양계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관에서는 Cathode(음극)에서 막대한 양의 전자가 방출되지만, 그리드(grid)와 애노드(anode)의 플러스 고전압이 그 전자를 끌어 당긴다. 그러면 전자군은 고속도로 애노드에 끌려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하고, 다음 애노드쪽으로 직진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애노드와 플러스 고전압을 이용하면, 이론상으로는 전자군을 대단히 먼 거리에까지 도달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그림-1>

<그림-1> 브라운관과 태양계의 비교



우리 태양계의 경우도, 브라운관의 그리드와 비슷한 화성과 목성의 사이에 있는 제 1아스테로이드대가 마이너스 전하(電荷)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온 플러스 미립자를 굉장한 흡인력으로 가속해서 통과시킨다. 그러면 미립자군은 해왕성과 명왕성의 사이에 있는 제 2아스테로이드대(帶)로 끌여 당겨져 이곳을 통과한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물론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3개의 혹성까지도 지구와 같은 빛과 열이 제공된다고 한다. 이 이론도 다음 세기에는 발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 금성 탐사가의 놀랄만한 발견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속에서 애덤스키는 주로 금성의 눈부신 문명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꿈같은 도시와 조화로 가득찬 초고도로 발달한 텔레파시를 구사하는 금성인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정말로 이상향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세계가 이웃 혹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할 유력한 발견도 이미 발표되었다. 1979년에 발사한 미국의 금성탐사선·파이오니아 금성 1호와 2호가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금성의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번개가 치고, 지면 근처에서는 이상한 백열광이 빛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놀랄만한 대발견이지만 무슨 일인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잊혀지고 말았다. 문명존재의 진상에 필적할 만한 대발견은 숨기거나 발표해도 곧 철회해 버리는 것이 미국 우주개발기관의 상투적인 수법인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달표면 착륙의 아폴로 계획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대중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발표사항을 자세히 조사한다거나 사진같은 것을 검토해 본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로 노력을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저 대중은 강대국의 과학연구 기관이나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고 마는 경향이 있다.

### 영원한 수도 로마

우리 여행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8월 13일의 저녁무렵이었다. 처음으로 본 갈색 석조의 성도(聖都)에 감동한 일행은 시내 여러곳의 고적을 견학하고 지구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성으로부터 환생해서 왔다는 예수의 고귀한 파동에 빠져들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씻겨진 듯한 느낌으로 각지의 유적을 구경했다. 유람선을 타고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갈릴리아 호수를 건넌 뒤, 19일 오후 5시 반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향했다.

귀국시의 출발지가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룻

밤 묵고 로마시내를 견학할 예정이었다. 저녁 8시 47분에 로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파라티노 호텔에 투숙한 우리는 하룻 밤 마음편히 푹 쉬었다. 다음날 20일, 이른 아침 5시 반에 모닝콜로 잠을 깬 일행은 7시에 버스로 시내관광을 하러 출발해서 먼저 트레비샘으로 갔다. 나의 로마 견학은 2번째였지만 2천년전의 대로마 제국이후의 역사의 중요성 때문에 도시전체가 일대 박물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영원한 수도 로마를 아직 충분히 살펴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오전만 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견학장소도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부분만을 택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

### 중요인물, 베드로와 요한

트레비샘은 이른 아침인 탓인지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분수도 정지된 채였다. 이곳을 뒤로 한 일행은 버스로 로마최대의 하이라이트인 산피에트로 대성당으로 향했다. 이곳은 로마의 바티칸시에 세워져 있는 세계최대의 거대한 성당으로 카톨릭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산피에트로란 성베드로를 이탈리아어로 읽은 것으로, 예수의 첫 제자였던 베드로를 모시는 성당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파의 관저로 연행되었을 때 뒤따라 가서 안으로 숨어 들었는데 관저의 하녀로부터 「당신도 저 남자(예수)의 일당이죠?」라고 힐문당하자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나 「닭이 세 번 울기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는 예수의 예언을 생각해 내고 서럽게 울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신약성서에 네곳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다.(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베드로란 바위라는 뜻의 별명으로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며 갈릴리의 벳사이다 출신이다. 동생 앙드레와 함께 예수에게 권유받고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산계급의 선주였다고 생각되며 그 집터도 카페나음에서 발굴되었다. 우리 여행단도 이곳을 견학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으로 스승의 신임이 두텁고 그를 칭송하여 「나는 베드로(바위)앞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예수가 말했을 정도였다.(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가 체포되어 책형(磔刑)에 처해질 것 같자 공포심이 생겨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주해 버렸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만 그도 스승이 죽은 후에는 용맹심을 불러 일으켜서 전도를 위해 활약한다. 이는 틀림

없이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먹은대로 행동하는형인 베드로는 언동으로 지나치게 덤비다 실수하는 일도 있었지만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는 성격이었고 예수도 그를 사랑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가 겐세마네의 바위에 매달리면서(이 바위도 현존하고 있다)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계시를 구하느라 비지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와 함께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있는 모습은 조금 익살스럽기도 하다. 그때 겐세마네 스승의 기도를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요한의 형 야곱 세사람 뿐으로 이 세명이 예수의 측근중에서도 특히 친밀한 주류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승이 책형에 처해질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쳤다. 이 요한이 2천년 후에 환생하여 애덤 스키라는 이름으로 출현하고 우주 법칙과 다른 흑성군의 진상을 전한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최후를 마친 예수는 2천년 후에 오손이라는 가명의 금성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한 모퉁이, 사막센터에 착륙한다. 사제끼리의 극적인 재회인데 이 회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흑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에 언급되어 있다.

### 베드로의 장렬한 최후

베드로는 예수가 붙여준 별명대로 바위 같이 강인한 성격 소유자이며 예수가 죽은 후에는 사도들의 중심인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 바오로에 의하면 요한과 요한의 형이었던 야곱 세사람이 예수 사후의 기둥으로서 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야곱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적 경향이 강한 신앙자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포용적이었던 베드로와는 마음이 맞지 않았던 듯 하다. 이때문인지 베드로는 팔레스티나를 탈출한 뒤, 그리스의 고린도로 간 것 같다. 신약성서는 베드로의 생애에 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전설이 남아 있을 뿐인데 그것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나타나서 전도하다가 폭군 네로의 박해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지만 예수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황송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거꾸러 매달려 죽기를 소망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55~117)가 그 저서 「연대기」에서 베드로의 순교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기원 64년에 로마에서 큰 불이 났다. 당시 초기 기독교도를 증오하던 잔인한

황제 네로는 이 방화범으로서 베드로를 검거하고 많은 기독교도들도 체포해서 참살시켰다. 그들은 야수의 가죽을 걸친 상태로 경기장으로 내보내져서 맹견에서 습격당하고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묶인채로 화형에 처해졌다. 베드로도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이 경기장은 현재 남아 있는 거대한 콜롯세움이 아니라 원래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안쪽 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 대성당의 대광장 중심부에는 기원 40년전에 카리구나 황제가 에리포리스에서 가지고 온 높이 25.5미터의 방첨탑(obelisk)이 서 있다. 베드로는 이 방첨탑의 위치에서 죽은 것이라고 관광 안내원에게 들긴 했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방첨탑은 원래 네로가 만든 대경기장의 중심에 서있던 것을 1586년에 교황 시스토 5세가 현재위치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사원 앞에서 죽었다라는 설은 믿기 어렵다. 단 베드로의 유체를 묻은 묘는 산피에트로 대사원의 중앙제단 밑에 있다고 하는 옛날부터의 전설에 따라서 194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 교황 피오 12세가 허가하여 발굴한 결과 그인 듯한 유골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유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비에 새긴 글은 당시의 기독교도 박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산피에트로 대성당 건립의 역사

8시 10분에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산피에트로 대광장으로 들어갔다. 1656년부터 11년이란 세월에 걸쳐 바로크의 거장 베르니니가 완성시킨 최대지름이 240미터인 타원형의 광장 맞은편에 아침 햇빛을 흠뻑 받은 거대한 갈색의 대성당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로마에 전도하러 온 베드로가 우선 작은 예배당을 세웠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원류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도 대탄압에 의해 소멸되었던 곳에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6년에 베드로의 묘터에 최초의 바실리카(교회당)를 건립했다. 이 교회는 내부에는 호화로운 장식이 달려 있고 약 천년의 수명을 유지했지만 노후화되어 붕괴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1506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웅대한 재건 계획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르네상스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도나트 브라만테가 선정되었다. 그는 그리스 십자(세로선과 가로선의 길이가 같은 십자형)으로 설계를 해나갔지만 타계했기 때문에 라파엘이 이어받아서 라틴 십자형(세로선의 밑이 긴 십자형)으로 변경했으나 또한 타계하고 1546년에 미켈란젤로가 뒤를 이어서 높이 135미터의 대형돔을 그리스 십자형에

기초해서 완성시켰다. 미켈란젤로가 죽은 뒤에는 포르타, 폰타나, 마데르노, 베르니니라고 하는 역대의 거장들이 건축의 설계감독을 담당하고 1626년 11월 18일에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완성된 대성당의 헌당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 대성당 내부는 일대 미술관

대성당 내부는 먼저 정면을 올려다보면 가로 145미터 · 높이 45미터의 장엄한 대건축의 중언방 위에 십자가를 왼손에 든 예수의 상을 중심으로 요한과 그 외의 12사도 중 10인의 제자상이 나란히 서있다. 배반자 유다는 제외되어 있다. 베드로 상은 본당앞의 왼편 지상에 서 있고 이것과 대조적으로 동지였던 바오로의 상이 오른편 지상에 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광대함에 깜짝 놀란다. 라틴 십자형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본당의 안길이는 211.5미터, 폭은 27.5미터, 높이가 46미터라고 하는 거대한 것으로 이곳에는 르네상스 이후의 대예술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나 벽화가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전체가 미술관인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 들어서자마자 우측에는 유명한 피에타가 있다. 미켈란젤로 24세때의 명작이다. 예수의 유체를 안고 비탄에 잠긴 어머니 마리아의 대리석상이 보는 사람을 감동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다. 그 외, 본당 중앙분의 마지막 기둥 밑에 있는 5세기 경의 피에트로의 브론즈 좌상, 그 옆에 있는 베르니니 작품의 성론지노상, 그 밖에 조각이나 벽화류에 압도당해서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이다.

## 베드로의 의자

우리는 먼저 대성당을 뒤로 하고 여행단 전원의 기념촬영을 했다. 그 뒤 일동은 히라노씨라는 현지 주재 여성 안내원의 선도로 줄지어 본당안으로 들어갔다. 필자는 78년 8월의 출판사 경영 시절에 실시했던 이집트·유럽 여행때 이곳에 한 번 왔었기 때문에 처음만큼은 경탄과 감동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의 목적은 있었다. 그것은 2천년전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목재 의자의 진품이 이 대성당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그것을 보고 싶었고 그 의자는 대성당 안의 어딘가에 틀림없이 전시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내원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면서 대충 설명을 들은 뒤, 일행과 떨어져서 의자의 안치장소를 찾아 돌아다녔으나 도무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들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이곳의 수도사들은 전혀 영어를 몰라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 성사의 예배당 옆 근처에 있던 안내계의 수도사에게



문자 「영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손을 저었다. 한명의 수녀를 붙잡고 물어 봤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카톨릭신학을 공부하는 수도사들은 영어공부는 하지 않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피오 8세의 묘 근처까지 왔을 때 동료 중 한사람이 안쪽으로 통하는 통로에서 느닷없이 튀어 나왔다.

### 젊은 수도사의 출현

「베드로의 의자를 찾고 있는데, 자네 혹시 있는 곳을 알고 있나?」라고 문자 「방금 이 통로의 안쪽까지 쭉 가봤는데 막다른 곳의 안쪽에 멋진 방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좋아 가보자!」라고 하고 나와 동료는 나는 통로의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 때는 앤도·아끼노리 부부와 그 밖의 여러명의 동료도 함께 있었다. 이 긴 통로는 대성당의 왼편에 부속된 건물로 통하는 것 같고, 도중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다. 많은 수도사들과 맞닥뜨렸지만 우리들을 보고도 아무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통로가 끝나면 막다른 곳인 듯 한 장소가 나왔다. 근처에는 수도사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보니까 왼쪽에 무엇인가 유서가 깊어보이는 방이 있었다. 이곳이다! 싶어 잠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명의 중년 수도사가 놀란 모습으로 양손을 벌리고 안된다며 저지했다.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의자를 보고 싶는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영어로 질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 또한 영어를 전혀 못하는 듯 당혹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상대 수도사는 오른편을 가르키며 「저기, 저기,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듯한 몸짓을 했다. 보니까 훌륭한 용모를 지닌 젊은 수도사 한명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이라면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때마침 출현한 젊은 수도사쪽으로 다가가서 베드로의 의자를 보고 싶는데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당시 나는 영어 발음을 미국식에서 모두 영국식으로 바꾼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통한 것 같았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유럽인은 모두 영국발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대해서 젊은 수도사는 멋진 영국영어로 즉석에서 대답했다.

「베드로의 의자는 저쪽 대성당의 안쪽 제단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없습니다.」

「안쪽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부근입니까?」

중앙 제단 밖에 모르는 내가 되묻자 젊은 수도사는 말했다. 「그럼 그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지죠」

친절한 수도사와 나란히 본래의 방향으로 통로를 걷기 시작했다. 일행도 줄지어 따라왔다. 이 젊은 수도사는 27·8세 정도로 키가 크고 신장 180cm에 가까운 나와 같은 정도이거나 조금 더 큰 듯했고 검은 승복을 입고 있었다. 복장은 다른 수도사와 같았지만 — 단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당연히 있을테지만 일반인은 잘 모른다 — 단 하나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었다. 이 대사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는 모두 메마른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수도사는 혈색이 좋고 언뜻 보기만 해도 발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전혀 수도사답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의외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용모는 완전히 백인형으로 복구계를 연상시키는 단정한 얼굴 생김새였다. 스칸디나비아 근방에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 로마로 유학 온것일까?

옛날 애덤스키가 이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23세와 몰래 회견했던 유명한 사건을 대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게 설명했었는데 통로를 걸던 중 다시금 이 말이 뇌리를 스쳤다.

### 애덤스키와 로마 교황과의 회견

1963년 애덤스키는 2번째의 유럽 강연여행을 했다. 그는 각국을 순방한 후 5월 30일 밤 8시에 로마에 도착해서 호텔 아우리가에 투숙했다. 통역 겸 안내원으로서 수행한 사람은 스위스의 애덤스키와 활동가 루·킨스타크 여사와 벨기에 GAP회장 메이·모르레 부인이었다. 다음날 31일 금요일 오전 11시 애덤스키는 두부인을 거느리고 산피에트로 대사원으로 찾아갔다. 덴마크에서 우주인에게 부탁받은 메시지를 교황 요한 23세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다. 대성당 입구 앞의 돌층계까지 온 뒤 애덤스키는 오른편의 스위스인 위병이 있는 특수한 통용문쪽으로 걸어가서 사제복을 입은 남자가 문안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내 친구가 저기에 있다!」라고 두사람에게 말하고 한 시간후에 나올테니까 여기서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무료입장·허가증이 주어진 듯 하고 위병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마중 나온 남자는 외계인이었던 것 같았는데 스탄이라고 불리우는 긴 사제복을 애덤스키에게 입게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지켜본 두부인은 대사원안을 구경한 뒤 한시간 후에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색이 만면한 애덤스키가 나와서 「로마 교황과 만났소!」라고 소년처럼 기뻐하면서 이야

기 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황은 애덤스키가 내민 하얀 봉투를 받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주고 받고 마지막에 교황은 애덤스키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그 방을 나온 뒤 애덤스키는 한시간 쯤 건물안에 머물며 외계인 수도사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필자가 1975년 11월 쥘네브에서 루·친스타르크와 만났을 때에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 1978년 8월에는 파리에서 메이부인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교황과의 회견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11월 23일에 도쿄 과학기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GAP총회에서 초청을 받고 일본에 온 메이부인은 강연에서 애덤스키와 교황과의 회견에 관해 언급했었다.

그러나 메이 부인은 한가지 실수를 했다. 세사람이 대사원을 뒤로 하고 호텔 아우리가로 돌아왔을 때 애덤스키가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려는 기색을 보여서 그녀도 함께 있으려고 생각했지만 루·친스타르크가 「방으로 돌아가서 쉬지요!」라고 하여 그만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바티칸 궁전의 고위간부가 호텔을 방문해서 애덤스키에게 메달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두 부인이 로비로 내려오자 방금 궁전에서 고위 간부가 와서 메달을 주었다고 애덤스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메이는 발을 뚱뚱 구르며 이쉬워 했다. 로비에 함께 있었다면 증정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티칸의 고관이 그 날 오후 호텔로 애덤스키를 방문했다는 것은 호텔에서부터의 증언 편지를 영국의 연구가 론·캐즈웨르가 받아 놓았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 시기에 이미 루·친스타르크는 애덤스키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고 내가 쥘네브에서 만났을 때에도 애덤스키의 체험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 이것은 애덤스키가 그녀의 성질을 꿰뚫고서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풀이로서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메이도 그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베이의 도쿄 체재중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면 언제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당시에는 재혼해서 메이·프리트크로프트부인이 되어 있었다. 본 줄거리에서 벗어나 이야기이지만 1983년에 루·친스타르크는 영국의 UFO 연구가 티모시·구드와 공동저술로 애덤스키에 관한 영문 책을 영국에서 펴내고 있었다. 나도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읽어 보았지만 내용을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애덤스키로부터 떠난 예전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비난도 쓰여있어 읽고 싶은 기분이 안드는 형편없는 책이었다. 이것은 애덤스키를 불리하게 만드려는 목적으로 씌여졌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Silence group(애덤스키 문제를 말살하려고 압박하는 단체)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자료가 될 것이다.

## 젊은 수도사는 금성인이었다.

나는 젊은 수도사와 나란히 긴 통로를 걸어 갔다. 그리고 에덤스키와 교황과의 회견을 주선한 외계인 수도사의 일을 생각해 내고 이 젊은 수도사도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하는 상념이 순간적으로 스쳤지만 베드로의 의자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너무 강해서 곧 사라져 버렸다. 일동도 뒤따라 왔다. 대성당 안으로 되돌아 온 뒤에 그 젊은 수도사는 중앙제단 옆까지 가서 멈춰섰다. 좌측에 나란히 서있는 내 얼굴을 가끔 보면서 설명했다 「보세요. 저 안쪽에 큰 청동 의자가 있죠? 네명의 비숍(사제)이 각각 의자의 다리를 껴안고 있지요? 저 브론즈 의자의 뒤에 베드로의 의자가 보존되어 있습니다.」라며 가르키는 방향을 보니 거대한 의자의 구부러진 다리를 네명의 사제가 들어 올리고 있는 훌륭한 브론즈 상이 있었다. 이것은 사교좌라고 하는 것으로 베르니니의 명작이다. 앞쪽에 있는 두명의 사제는 로마교회, 뒤에 있는 두명은 그리스 교회의 사제임을 나중에 알았다.

「여기서는 베드로의 의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사가 멋진 영어로 분명히 대답했다. 그 얼굴은 내 얼굴과 5·60 센치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상대의 입김 냄새가 흘러 나올 정도의 거리였다. 반대로 내 입안의 은단 냄새를 상대는 깨달았을 지도 모른다. 실망한 나는 일행에게 통역을 해 주고,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물러났다. 수도사도 떠나갔다. 그리고 그 일은 잊어 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몇 개월이 경과한 85년 11월에 어떤 이유에 의해, 그 수도사가 틀림없는 외계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금성인이었던 것이다. 그러고보니 그 수도사는 처음부터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마치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타이밍 좋게 출현했다. 텔레파시나 원격투시로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 지구인과 다르지 않은 우주인

지금의 나는 그 수도사가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에 초경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산피에트로 대성당이나 바티칸 궁전처럼 세계의 카톨릭 신자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기관에 외계인이 깊숙히 침투해서 무엇인가 원조활동을 몰래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성당에 있는 수백명의 수도사들은 외계인이 수도사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

주인은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외간상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나는 외계인과 우연히 만난 경험이 있는데 역시 외관상으로는 지구인과 똑 같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구의 각지에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연락망을 펴고 지구의 여러 상태에 대해 관찰이나 연구를 하기도 하고 원조활동을 하며 지구사회의 진보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Space Program(지구구제계획)이라고 한다. 이 일은 애덤스키도 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앞에 언급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그들은 소수의 특수한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정체를 누설하지 않는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인을 혐오하며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끝없는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미발달한 형제자매(지구인)의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몰래 지구인을 원조하고 있는 것이다.

## 엄중한 경계

단, 난폭한 지구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고려해서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내가 이는 바로는 GAP회원처럼 우주인이나 지구의 혹성 문명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어딘가에서 우주인이라든가 눈치채고 텔레파시로 「당신은 다른 혹성에서 오신 분입니까?」라고 질문해도, 질문자가 어지간히 특수한 사람이 아닌 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지그시 바라본다든지, 그 외에 무언가 몸짓을 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정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인 같은 사람을 발견해도 집요한 탐색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대에게 폐가 되기 때문이다. 옛날 애덤스키의 책을 읽은 여대생 그룹이 「우주인을 찾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도쿄안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흥미본위나 엽기 취미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주인은 굉장한 텔레파시 능력과 지구인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의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이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반 장남삼아 추적해도 결코 만날 수 없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거니와 4차원의 세계에서 온 변신이 자유로운 요괴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육체를 가진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고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계획은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우주인에 관해서 환상적·동화적 또는 도깨비 같은 우주인의 이미지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중력장 발생 엔진을 탑재한 금속체의 훌륭한 대우주선에 올라타고 지구 어딘가에 몰래 착륙해서 이 세계에서 외관상으로는 지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활동하는 고귀한 원조자이다. 문자 그대로 “천사”인 것이다.

### 애덤스키는 진실했다.

「지구인에는 악귀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사람도 많으므로 우주인도 많은 사람에게 좀 더 공공연히 정체를 누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진지하게 UFO나 지구와 혹성의 문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구세계는 더없이 복잡하고 인간의 정신상태도 그들을 공공연히 받아들이 만큼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애덤스키는 말하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선량하기는 해도 다른 혹성군의 문명이나 인류의 존재를 아직까지도 꿈같은 이야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조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UFO연구가 중에도 애덤스키가 전한 지구와 혹성군의 훌륭한 문명에 관한 정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애덤스키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가짜·피접촉자도 몇인가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우주인도 안심하고 표면에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우주선인 비행접시나 모선이 공중에 출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세계에 무수히 있지만 이 UFO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많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애덤스키 문제는 진실이었다고 단언하고 싶다.

### 우주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

한편, 이 우주적인 문제에 관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강한 신념을 갖고 탐구하고 이 우주계획을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우주의 의식”과 일체화시켜 텔레파시가 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인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고 애덤스키는 설명하고 있다.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아니고 영혼과 영혼의 교류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한 훌륭한 기사(記事)가 있다. 신 애덤스키 전집 제 5권「금성·토성 탐방기」의 102페이지에 「형제들을 (다른 위대한 혹성에서 온 형제) 분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는 기사다. 한 토성인이 말하는 심원한 생명철학이야말로 지구의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능가한 “대우주의 소리”라고 할 만하다. 짧은 문장이지만 피접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필독 기사이다.